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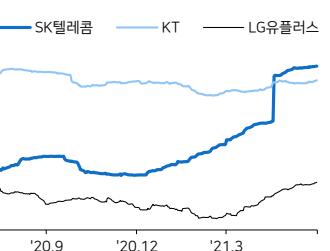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1.1	3.6	8.6	17.6	12.5	12.5	1.3	1.3	1.5	1.5	
통신업종	0.2	1.7	19.0	31.0	10.7	10.7	0.8	0.8	3.5	3.5	
SK텔레콤	0.0	2.5	19.2	32.2	11.2	8.8	1.0	0.9	3.2	3.3	
KT	-0.8	-2.6	14.7	27.5	10.1	9.0	0.6	0.5	4.6	4.9	
LG유플러스	2.0	5.0	25.7	29.3	10.0	8.8	0.9	0.8	3.2	3.5	
AT&T	0.8	-2.2	-4.7	0.7	9.1	9.3	1.2	1.1	7.2	6.8	
Verizon	1.0	0.0	-3.1	-4.2	11.1	10.9	3.0	2.6	4.5	4.6	
T-Mobile	0.4	4.1	18.2	9.3	62.8	42.4	2.7	2.5	0.0	0.0	
NTT	1.6	-1.0	-3.2	9.9	11.6	9.6	1.3	1.2	3.6	3.8	
KDDI	-1.1	-6.1	-4.9	13.5	12.1	11.8	1.7	1.6	3.5	3.7	
Softbank	1.2	-4.1	-14.1	3.1	3.5	10.1	1.8	1.2	0.6	0.6	
China Mobile	4.5	-1.0	-2.5	11.2	7.5	7.3	0.7	0.7	6.9	7.1	
China Unicom	3.9	1.4	-2.7	-3.6	7.7	6.8	0.3	0.3	5.4	6.1	
China Telecom	26.6	15.7	10.9	34.1	9.0	8.6	0.5	0.5	5.8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5.7% (+0.1%p WoW, +0.5%p MoM)

KT 44.2% (+0.1%p WoW, +0.2%p MoM)

LGU+ 33.1% (+0.3%p WoW, +0.8%p MoM)

통신3사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지속

2 업종 코멘트

통신 동향

6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9%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2Q21 실적 발표 전 이벤트 부재로 통신 3사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지속
LG유플러스 주가는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며 경쟁사 대비 Outperform
국내 기관은 LGU+순매수, KT,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은 LGU+, KT, SK텔레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1일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 3차 회의 개최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으로 촉발된 유료방송 대가 산정 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SK텔레콤 분기배당 및 LG유플러스 중간배당 도입으로 국내 통신 3사 배당 매력 부각 전망
국내 5G 통신장비 업체 가운데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이 하반기 부각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0	21	22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온라인 행사	23	24	25	26
27	28	29	30	1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 - PP 상생협의체' 3차 회의	2	3

3 주간 뉴스

▶ '5G 주도권' 노리는 삼성, 차세대 핵심칩 · 초고주파 기지국 공개

(디일렉)

- 삼성전자, '삼성 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하다'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신규 5G 네트워크 솔루션 공개
- 발표한 네트워크 솔루션은 기지국용 차세대 핵심칩, 고성능 기지국 라인업, 5G 강화 기지국 솔루션
- 또한 XR(확장현실),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 최첨단 기술 솔루션 기반 6G 기술 비전 공유
- ⇒ 금번 5G 설명회는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 및 ZTE의 빈틈을 노리기 위한 전략 설명회
- ⇒ '20년 4분기말 기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7%로 글로벌 5위. 향후 지속 상승 전망

▶ "FCC, 화웨이 장비 구매 때 보조금 사용금지 정당"

(ZD Net Korea)

- 미국 항소법원, 미국 정부 기금으로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FCC 명령 정당하다고 판결
- 항소법원은 통신망의 보안 위협을 평가하는 것은 FCC의 주된 영역(wheel-house)에 속한다고 결론
- 화웨이는 2019년 FCC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결정이 보안이 아닌 정치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고 비판
- ⇒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에 관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미국 법원의 오랜 전통 기반
- ⇒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 체제 아래에서도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전망

▶ SK텔레콤, 통신사업 789억원에 매각… "반도체 소재 사업 집중"

(전자신문)

- SK텔레콤, 통신장비 사업 부문과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SKC인프라서비스 매각
- 매각 대상은 팬택C&I, 매각금액은 789억원으로 SKC는 8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 SK텔레콤은 매각 재원을 바탕으로 전자재료 사업 부문의 반도체 소재 · 부품 사업에 집중할 계획
- ⇒ 이번 매각은 SKC의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미래 신규 유망 사업 위주로 사업구조 재편 중
- ⇒ 팬택C&I의 이번 통신장비 사업 부문 인수는 기존 휴대폰 부품 개발 및 제조 자회사의 시너지 기대

▶ "글로벌 6G 선도에 5년간 2200억 투자"

(전자신문)

- 정부, 6G 이동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79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2,200억원 투자
- 또한 지난 5월 한 · 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과 6G 협력 체제를 구축, 100억원을 공동 투자
- 6G 시대에는 위성 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병행 수립 · 추진
- ⇒ 정부는 6G 기초가 되면서도 민간이 적극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
- ⇒ 6G 시대에는 UAM 및 해상 · 재난지역 등 공간 제약을 뛰어넘기 위한 위성 중요성이 커질 전망

▶ KT스카이라이프, 회사채 1천억 모집에 4천100억 몰려

(아이뉴스24)

- KT스카이라이프, 6년 만에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예측에 4배가 넘는 투자금이 몰렸다고 발표
- 구체적으로 3년 만기 700억원 모집에 2,400억원, 5년 만기 300억원 모집에 1,700억원
- 수요예측의 대성공에 따라, 2일 발행 예정인 회사채를 최대 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 검토 중
- ⇒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월 계약한 현대HCN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
-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과 현대HCN 인수 기반 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

▶ '진짜 5G' 지하철 2호선서 터진다

(조선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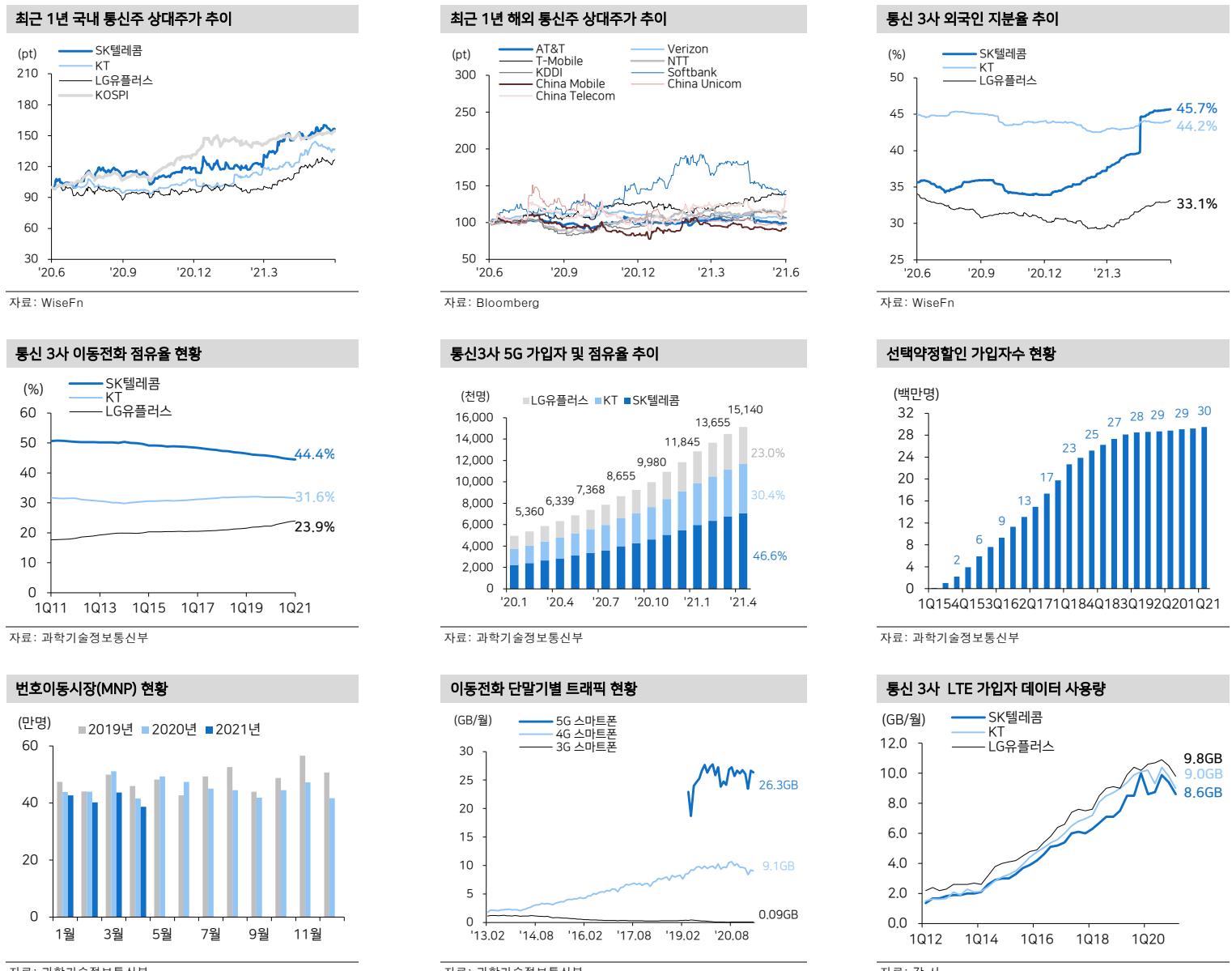
- 국내 이동통신 3사, 서울 지하철 2호선 28GHz 주파수 대역 5G 설비 14일부터 구축 시작
- 28GHz 서비스는 LTE와 비교해 최대 20배 빠른 최대 20Gbps (초당 기가비트) 속도 구현 가능
-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LTE보다 최대 4배가량 빠른 3.5GHz 대역으로 전국망 구축에 집중
- ⇒ 28GHz 주파수는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돼서 B2B나 인구포화지역 중심으로 설치될 계획
- ⇒ 기존 제시했던 계획보다는 부족하겠지만 통신 3사 위주로 점차 28GHz 투자가 확산될 전망

4 주요 지표

(집약달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26,500	20.9	17.3	17.9	1.3	1.5	2.0	2.4	5.1	5.3	5.9	5.7	8.9	10.4
	KT	32,450	7.5	21.8	22.4	1.2	1.3	0.7	0.8	4.4	4.6	3.0	2.9	5.9	6.4
	LG유플러스	15,650	6.1	12.3	12.9	0.9	1.0	0.6	0.7	3.1	3.2	3.8	3.7	9.0	9.5
미국	AT&T	28.9	206.3	173.5	163.4	33.4	33.1	22.3	21.0	53.5	52.2	7.3	7.5	12.7	11.7
	Verizon	56.4	233.4	133.6	136.3	31.7	32.7	20.9	21.3	48.5	49.9	7.9	7.7	28.2	25.5
	T-Mobile	145.3	181.2	79.8	81.8	7.1	9.6	3.0	4.4	27.1	28.1	9.4	9.1	4.8	6.2
일본	NTT	2,897	102.0	108.2	109.0	15.1	15.7	8.4	9.8	29.0	29.5	6.9	6.7	10.8	13.8
	KDDI	3,440	71.5	48.5	48.7	9.6	9.6	6.0	6.0	16.3	16.3	5.1	5.0	14.5	13.6
	Softbank	7,931	123.3	50.9	53.6	49.9	17.0	37.1	11.2	50.0	33.1	5.3	7.8	39.3	10.2
중국	China Mobile	49.5	130.6	124.1	129.2	18.7	19.0	17.3	17.9	45.4	46.7	1.6	1.5	9.5	9.3
	China Unicom	4.3	16.9	49.5	52.0	2.1	2.4	2.2	2.5	15.2	15.9	1.0	0.9	4.3	4.8
	China Telecom	3.0	30.8	64.2	67.1	4.8	5.1	3.6	3.8	19.3	20.0	2.1	2.0	6.2	6.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주요 차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